

## 독일연방하원 인사 초청 만찬사

존경하는 코쉬크 독·한의원친선협회장,

젠프리츠키 경제협력개발위 부위원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환영과 두 분의 따뜻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독일 방문 사흘째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나는 세계 일류국가 독일의 저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 중심에 독일 의회가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루어 온 위업에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독일은 수출 세계 1위의 경제대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 경쟁과 연대의 조화, 그리고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모범국가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일이 이루어 낸 성공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 내내 말씀드려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가장 부러워하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독일 통일과 EU 통합, 그리고 과거사 청산입니다. 나는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제 브란덴부르크 문을 보면서 역사의 진보에 대한 확신과 함께 대결과 분단의 상징이었던 그곳을 자유와 평화의 광장으로 바꿔 놓은 독일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르지도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독일의 통일에서 희망과 교훈을 얻게 됩니다. 독일은 또한 세계 역사에 남은 EU 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뤄 냈습니다. 최근 EU 확대와 헌법조약의 타결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유럽은 이제 전쟁과 대결의 역사를 마감하고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의 유럽을 만들어 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동북아시아에도 화해와 통합의 질서가 구축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앞장서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나는 이와 함께 독일의 과거사 청산방식을 존경합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솔직히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할 줄 아는 양심과 용기,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실천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역사 교과서 또한 이웃나라들과 협의를 거쳐 편찬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이런 노력이 주변국과의 화해를 이뤄 내고 오늘의 EU 통합을 가능하게 했을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할 우리로서는 참으로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나는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두 나라가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서 이루어 갈

미래에 대해 큰 희망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올해 한·독 간 ‘입국 및 체류 양해각서’가 발효됨으로써 양국 국민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코쉬크 의원을 비롯한 의회 지도자와 독일 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우정 속에 양국 관계는 더욱 돈독하게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독일연방하원의 무궁한 발전과 양국 관계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건배를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